

도서관 공간에 대한 장애인 이용행태 및 요구 분석*

A Study on the Disabled' Use Behavior and Needs towards the Library Space

배 경 재(Kyung-Jae Bae)**

<목 차>

I. 서론	2. 면담 방법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IV. 분석 결과
2. 연구 문제	1. 피실험자 기본 특성
II. 선행 연구	2. 이용자 환경 분석
III. 연구 방법	3. 도서관 공간 이용
1. 연구대상 선정	V. 논의 및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실제로 도서관 공간에서 느끼는 경험은 어떤지를 고찰하고, 장애인이 원하는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각 5명씩 총 15명의 피실험자를 선정하여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 공간에서의 장애인 이용자 경험은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도서관 직원 및 비장애인의 잘못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도서관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유형별로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서비스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도서관 공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키워드: 도서관 공간,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 도서관서비스 이용공간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experiences that the disabled actually feel in the library space in the face of growing social demands for spatial functions in public libraries. This study also tried to determine the requirements for the space that disabled wanted. For the research, 15 subjects were selected for each of the five people who were blind, deaf, and handicapped with experience using the library an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he research. The study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the disabled in the library space differed by type of disability and generally more negative experiences were found than positive ones. Misperception about the disabled of library staff and the non-disabled were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sabled's negative experience for library space. There were a wide variety of opinions on the requirements for library space and there were generally negative perceptions about the current level of library space for the Integrated library service space.

Keywords: Library space, Library service for the disabled, Universal design, Integrated library service space.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3049917)

이 논문은 2017년도 동덕여자대학교 연구년 제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jbae@dongduk.ac.kr)

•논문접수: 2019년 5월 20일 •최초심사: 2019년 5월 28일 •게재확정: 2019년 6월 17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2), 25-42, 2019.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6.25>]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공공시설로서 도서관 공간의 사회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¹⁾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으며, 2022년까지 공공도서관을 1,042개에서 1,200여개로 확충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분 이내 도서관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국무조정실 2019). 이는 도서관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시설이자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로서의 가치가 강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유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2019년 1월 확정·발표한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1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공간의 개방성 확대’를 설정하고, 관련 세부과제로서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를 정의하였다. 이 과제는 기존에 독서실 기능의 학습공간으로 잘못 인식되던 도서관 공간을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공 공간기능으로 전환하고 공유 개방공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장애인, 어린이, 빈곤·소외계층, 노인계층 등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공도서관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통한 물리적 환경 개선으로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장애인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원격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도서관 장서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또한 장애인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서관 소장 장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향유하고, 도서관 방문을 계기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의 역할을 도서관이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점차 전환되어져 가고 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여 공공서비스를 고려하던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에 대한 포용성을 강조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취지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합 서비스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공공서비스 기조가 전환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기능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공공도서관의 양적 증가,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공간 및 시설의 편의제공 강화 등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공간의 이용자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

1) 생활 SOC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활 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 생활 편의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신체적 장애 대상에 해당하는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환경적 요소 및 도서관 공간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도서관 공간에 대한 신체적 장애유형별로 세분화된 요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의거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시 공간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 2)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이 도서관 공간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 3)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도서관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는 통합서비스 공간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II. 선행 연구

도서관 공간에 대한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최근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주로 도서관 공간 구성 및 이용자 공간 대상 연구 등 주로 물리적인 공간의 구성과 관련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원(2019)은 공공도서관 공간디자인을 주제로 1998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총 120편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46편으로 38.3%, 공용공간이나 열람실, 프로그램실 등 주 이용자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33편으로 27.5%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공간이 12편(10%), 복합공간 10편(8.3%), 디지털자료실 등 정보화공간이 6편(5%) 순으로 나타났고, 기획이나 설계과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12편으로 10%의 비율을 보였다.

지선과 장윤금(2017)은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청소년자료실 공간구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자료실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열람석 확대, 정보활용기기 이용 공간 부족, 휴게 공간 부족, 그룹학습 및 모임 공간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김환희, 박지홍(2019)은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이용자에게 소비 또는 이용을 결정할 영향요인(서비스스케이프)으로서 청결성, 쾌적성, 심미성, 편의성의 순서를 제시하고, 편의성을 필두로 청결성, 심미성, 쾌적성 순으로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박성재(2019)는 한 구립도서관에서 4개월 동안 공간이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스마트폰 무선신호를 감지하여 이용자의 동선을 추적,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평균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2호)

37.9%의 이용자들이 익월에도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자 중의 50%는 7분 미만으로 도서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층간 공간이동을 분석한 결과, 서가가 위치한 3층과 4층 사이의 공간이동이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최근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기준 및 매뉴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공간 및 시설요소에 대한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배경재, 강지혜, 차성중(2018)은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의 매뉴얼 구성요소에 대한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에서 기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구성요소의 중요도(필요수준)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3.98), ‘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3.97)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일선기관의 담당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밝혔다.

차성중, 배경재(2019)는 장애유형별 이용자에게 도서관 시설 관련 주요항목의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은 ‘안내시설’, 청각장애인은 ‘열람시설’, 지체장애인은 ‘위생시설’이 중요도가 높은 항목으로 각각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강지혜, 차성중, 배경재(2018)는 장애유형별 이용자 핵심요구를 연구한 결과, 여법적 근거에 도서관 시설과 설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장애 이용자들은 여전히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시각장애인들은 물리적인 접근의 어려움을 피력했으며,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은 단독 공간을 요구하였다. 반면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사용 중 알람장치, 화상전화기, 사인 등의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도서관 공간 및 장애인을 위한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도서관 공간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용자 대상별, 관중별로 각 공간의 기능과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및 공간 요소에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가 공간적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의 정량적 연구를 통해 진행되어져서, 신체적 불편함을 가진 장애인 이용자가 실제로 도서관에서 공간/시설의 영역에서 바라는 점과 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심층적 탐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으로 보인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는 신체적 장애 대상에 해당하는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환경적 요소 및 도서관 공간이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는 장애인 이용자를 심층 면담하여 보다 세분화된 요구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도서관 공간은 실내의 공간에 특정하지 않고, 장애인의 특성상 도서관에 접근하는 경로부터 이용공간 등의 시설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장애인복지관을 자주 방문하며 타 장애인과 상대적으로 활발히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외부활동(직장활동 포함)을 수행중인 피실험자를 섭외하기 위하여 H 장애인복지관과 S 장애인복지관 소속 장애인도서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장애인도서관의 협조 하에 도서관이용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연구 참여 희망자 모집 안내문을 도서관 안내데스크에서 비치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하고, 조사 신청자를 접수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이용경험이 있음을 사전에 확인한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각 5명씩 총 15명의 피실험자를 선정하였다.

2. 면담 방법

피실험자와의 면담 조사는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피실험자가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청각장애인 면담의 경우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수어통역사가 면담에 함께 참여하였다. 면담 과정은 <표 1>에서 제시된 면담가이드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이용자의 면담과정에 대한 질문을 허용하고, 이용자의 답변에 따라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는 등의 느슨하게 구조화된 반구조화 면담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각 면담은 피실험자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내의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표 1>에 제시된 면담가이드의 범주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사항들을 이용자 환경, 도서관 공간 이용, 자유의견의 요소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이용자 환경에서 이용자 통상적인 하루 일과를 질문하면서, 평상시에 방문하는 장소 및 공간의 특성으로부터 도서관 활용경험을 연결시키면서 도서관 공간에 대한 의견을 이끌어 내하고자 하였다. 면담가이드는 피실험자와 실험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면담의 가이드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실제 면담에서는 피실험자가 본인이 처한 환경에서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행태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도록 권장되었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모두 <부록 2>와 같은 간략 기록의 형태로 정리되었다. 간략 기록은 Lincoln과 Guba의(Lincoln, Guba 1985) 자료의 분석 방법인 단위화(unitization)와 범주화(categorization)의 원칙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0권 제2호)

<표 1> 심층면담 가이드

영역	세부영역	내 용
이용자 환경	이용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나이, 직업 • 신체적 장애 특성 • 도서관 기본 이용실태(방문빈도, 방문목적, 이용서비스, 이용도서관) • 주요 활용 정보도구(독서보조기기)
	이용자 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인 하루 일과
도서관 공간 이용	도서관 이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 이용목적, 목적의 달성 여부(성공/실패), 실패시의 행동
	도서관 이용과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이용 시 이용과정(출발지, 이동경로, 도서관내 이동방법, 이용 공간, 이용 독서보조기기,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이용종료)
	정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활용 정보서비스의 유형, 만족/불만족
자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시설/공간에 대한 개선점, 건의사항 등

IV. 분석 결과

1. 피실험자 기본 특성

면담에 참여한 피실험자 15명에 대한 기본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부분 현재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청장년층이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신체적 특성상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학생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는 피실험자가 다수인 반면, 지체장애

<표 2> 피실험자 기본 특성

장애유형	피실험자	연령	장애등급	성별
시각	#1	22세	1급	여
	#2	30세	1급	여
	#3	20세	1급	남
	#4	32세	1급	남
	#5	53세	1급	남
청각	#1	34세	1급	남
	#2	31세	1급	여
	#3	28세	2급	여
	#4	41세	2급	여
	#5	21세	2급	남
지체	#1	45세	1급	여
	#2	42세	4급	여
	#3	48세	1급	남
	#4	35세	뇌병변6급(진행형)	남
	#5	30세	1급	남

인은 직업 활동보다는 가사 및 재활을 위한 운동을 위해 일상시간을 보내는 피실험자가 많았다. 모든 피실험자가 1급 또는 2급의 중증 장애등급을 갖고 있었으며, 또는 장애 등급이 낮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는 진행형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2. 이용자 환경 분석

가. 도서관 이용목적 및 방문빈도

장애유형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목적도 상이하며, 따라서 도서관이 장애인을 위해 배려해야 할 공간 또한 차이가 있었다. 시각장애인은 대부분의 도서관 자료 활용 패턴이 데이시(DAISY) 또는 음성파일을 전자도서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패턴을 선호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자료를 열람 및 대출을 목적으로 방문하기 보다는 아래 시각장애인 #1 피면담자 사례와 같이 독서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한편 청각·지체 장애인은 자료열람의 목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한다는 응답자가 다수 존재하였다.

도서관 방문빈도는 장애유형의 특성보다는 개인의 직업 및 독서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상대적으로 주부 및 무직의 특성을 지닌 지체장애인 피면담자 집단이 도서관 방문빈도가 주 1~2회로 높은 편이었다.

<시각장애인 #1> “제가 도서관 동아리에서 장애인식개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동아리가 3개 정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봉사활동이나 일을 나가는 거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애들한테 장애인식 개선 수업을 한다던지 그럴 때만 나가구요. 점자책

〈표 3〉 도서관 이용목적 및 방문빈도

장애유형	피실험자	이용목적	방문빈도	직업
시각	#1	봉사활동, 프로그램참여, 학습	주 2~3회	대학생
	#2	점자교육, 자료열람	주 1회	입시준비
	#3	학습	주 1회	대학생
	#4	자료열람 및 대출, 프로그램 참여	주 1회	사회복지사
	#5	자료열람 및 대출	매일	사회복지사
청각	#1	자료열람 및 프로그램 보조	주 2회	사회복지사
	#2	자료열람 및 프로그램 운영	주 1~2회	대학원생
	#3	자료열람, 도서관 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	연 2회	대안학교 근무
	#4	자료열람 및 대출	주 2~3회	특수교사
	#5	자료열람 및 대출, 학습, 휴게공간 이용	주 1회	대학생
지체	#1	자료열람 및 프로그램 참여	월 1회	주부
	#2	자료열람 및 대출	주 1~2회	주부
	#3	자료열람	주 1~2회	무직
	#4	자료열람 및 학습	주 1~2회	무직
	#5	자료열람	주 1~2회	무직

도 교정업무도 봐요. 라벨기로 뽑으면 간단하고 쉬운데 점자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일일이 찍어요. 한 땀 한 땀...”

나. 이용자 일상

지체장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실험자가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매일 반복되는 경로를 독립적으로 이동하고, 대중교통(지하철)을 이용하여 하루 일과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수업 또는 출퇴근과 여가시간의 운동 등 여가활동을 동일한 연령대의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수행하고 있었다. 다만, 이용자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커뮤니케이션에서 여전히 차별과 어려움이 존재함을 토로하였다. 이는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생활공간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었다.

<시각장애인 #5> 길거리 다닐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관계 속에서 보면 장애를 아직도 바닥에 깔고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장애는 하나의 특성이 아니라 개인을 대표하는 전체구나...그런 느낌이 드니까 심리적으로 자유롭지 않지요.

시각장애인은 직장생활을 할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정보를 청각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결국 잔무를 집에서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청각장애인은 통상적인 하루 일과의 차이가 비장애인과 큰 차이

<표 4> 이용자 하루 통상 일과

장애유형	피실험자	통상 하루 일과
시각	#1	수업, 여가시간의 운동, 도서관 이용
	#2	운동, 서점 방문, 입시준비, TV 시청
	#3	개인 관심사 학습,
	#4	출퇴근, 사회복지 업무, 여가활동(독서, 악기연주)
	#5	출퇴근, 사회복지 업무, 여가활동
청각	#1	출퇴근, 독서
	#2	수업, 독서
	#3	출퇴근, 여가활동
	#4	출퇴근, 여가활동
	#5	수업, 여가활동
지체	#1	가사,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참여 및 교우활동, 복지관 식사
	#2	가사,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참여 및 교우활동, 복지관 식사, 운동
	#3	뉴스시청, 복지관 식사, 운동, 북카페 방문
	#4	인터넷 강의 수강(종교, 관심분야), 운동, 독서
	#5	운동(직업재활센터, 스포츠센터), 복지관 식사

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청각장애인간의 교류를 통한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특성이 있었으며, 면담에 참여한 지체장애인들은 대부분의 일과시간을 복지관 방문 또는 운동 및 재활 활동으로 보내고 있었다.

피면담자의 하루 일과를 참고해볼 때 피면담자들이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선호하는 사항은 동일 장애유형 이용자 그룹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운동·독서 등의 여가활동과 무료 식사(지체장애인) 제공이었다.

3. 도서관 공간 이용

가. 도서관 이동방법

자택에서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표 5>와 같다. 청각장애인은 이동방법상의 불편함은 크게 못 느끼고 있지만, 시각·지체 장애인의 경우 익숙한 동선과 장소가 아닌 경우 도움이 필요하며 대부분 장애인 콜택시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장애인 콜택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은 도움 인력의 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지하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지하철 출구로부터 도서관까지의 이동편의성이 매우 중요한 방문요인으로 응답되었다. 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 출구로부터 도서관까지의 동선이 불편한 이유로 인해서 지하철 도착 즈음에 도서관으로 연락하여 직원이 지하철 출구까지 안내를 나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한 경우 짧은 거리라 하더라도 지하철 출구에서 도서관까지의 경로에 점자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신호장치가 불충분하다면 도서관 직원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도서관 이동방법

장애유형	피실험자	자택에서 도서관으로 이동방법
시각	#1	버스, 지하철, KTX
	#2	지하철
	#3	지하철, 장애인 콜택시
	#4	지하철, 장애인 콜택시, 독립보행
	#5	택시, 지하철, 장애인 콜택시
청각	#1	지하철
	#2	지하철
	#3	버스
	#4	자차
	#5	버스
지체	#1	도보(전동휠체어) 또는 멀리 있는 시설 이용할 경우 콜택시
	#2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독립보행 이동
	#3	도보(전동휠체어)
	#4	버스, 지하철
	#5	장애인콜택시, 지하철

나. 도서관 이용공간

청각장애인은 도서관 내 수어영상도서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영상자료 이용공간을 가장 활용성이 높은 공간으로 응답하였다.

<청각장애인 #3> “A도서관에 방문을 해서 저는 주로 1~2층을 이용합니다. 1층에는 DVD방이 있고 취미생활, 영어공부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반대쪽에 지하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동도서, 2층에는 외국 책들, 외국 언어에 관련된 책들... 주로 DVD를 보러 많이 갑니다.”

시각장애인은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전용 열람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부 장애인은 공공도서관 공간에 대한 이용의 정서적 어려움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최근 공공도서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서비스 공간에 대해 참고할만한 의견으로 통합서비스 공간이 조성되기 위해서 특히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시설과 인력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시각장애인 #5>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도 장애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장애인이 끼어들면 그분들도 장애인들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덜 익숙하고 장애인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보조적인 도움을 필요한데 그 부분이 충분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강연을 들으러 가도 자료 같은 것, PPT 같은 것이 전혀

<표 6> 도서관 주요 이용공간

장애유형	피실험자	주요 이용공간
시각	#1	자료실, 서가, 화장실, 엘리베이터
	#2	자료실, 서가, 화장실, 계단
	#3	장애인 전용 열람실, 계단, 엘리베이터, 계단
	#4	장애인 전용 열람실, 계단, 엘리베이터
	#5	장애인 전용 열람실, 계단, 엘리베이터
청각	#1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DVD 이용공간
	#2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3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4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5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휴게공간
지체	#1	자료실, 서가, 화장실, 엘리베이터
	#2	자료실, 서가,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3	자료실, 서가, 화장실, 엘리베이터
	#4	자료실, 서가, 열람실, 화장실, 엘리베이터
	#5	자료실, 서가,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제공이 안 되면 가서 앉아서 듣고만 있으면, 강사가 앞에서 이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저렇고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는 PPT 가 안 보이는데...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고요.(중략)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하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충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어서...당연히 자료열람도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공공도서관을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찾기가 어려워요.”

다. 도서관 공간/시설 요구사항

도서관 공간/시설 불편 및 요구사항은 모든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장애유형별로 특정사항에서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시각장애인은 공공도서관에 설치된 장애인열람실의 환경이 열악하거나, 독서보조기기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각장애인은 수어로 의사소통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비장애인의 인식 미비 및 민원으로 인해 독립된 전용공간을 요구하였으며, 지체장애인은 도서관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장 활발하게 제기되었으며, 특히 서가 활용시의 불편함과 편의시설의 개선사항을 주로 요구하였다.

<표 7> 도서관 공간/시설 요구사항

장애유형	피실험자	공간/시설 요구사항
시각	#1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시설 안내 점자라벨 미부착, 독서보조기기 유지보수 필요
	#2	계단이 너무 많음
	#3	시각장애인 전용열람실의 환경이 열악
	#4	시각장애인 전용열람실의 환경이 열악
	#5	시각장애인 전용열람실의 환경이 열악, 독서보조기기 유지보수 필요
청각	#1	청각장애인의 대화시 소음으로 인한 주변 인식, 배려 부족
	#2	청각장애인의 대화시 소음으로 인한 주변 인식, 배려 부족
	#3	청각장애인의 대화시 소음으로 인한 주변 인식, 배려 부족
	#4	협소한 장소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간 부족
	#5	청각장애인의 대화시 소음으로 인한 주변 인식, 배려 부족
지체	#1	서가의 높이, 화장실 시설(장애인 화장실)
	#2	이동도서관의 협소한 장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없다는 점, 장애인 화장실 구비, 서가 높이
	#3	서가 높이, 서가 사이 공간, 독서 보조기기 미비, 장애인 화장실
	#4	가파른 경사, 계단, 문턱이 높음, 문을 밀고 들어가야 함,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
	#5	협소한 공간, 서가이동시 불편

시각장애인은 도서관 내 동선에서의 장애물에 대한 불편함과 최근 대부분의 편의시설들이 터치기반으로 조작되는 기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최근 많이 설치되고 있는 터치형 자동 도서 대출/반납기가 시각장애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각장애인 #3> “점자블록보다 문제는 중간에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벽 쪽으로 몰아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 기둥 같은 것은 건물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중간에 쓰레기통이 있다던가.. 그런 거 그래서 웬만하면 다 벽 쪽으로 몰려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시각장애인 #4> “요즘은 보통 많은 것들이 터치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정수기 자체도 터치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시각장애인분들은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모르겠죠. 제가 간단한 예로 정수기를 말씀 드렸는데, 도서관에 있는 책을 찾거나 그런 것을 할 때도 화면상에서 터치로 조작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저희가 불편할 것 같고요.”

모든 청각장애인이 도서관 공간에서 불편한 사항으로 언급한 것이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한 인식개선과 별도의 이용공간 마련이다.

<청각장애인 #1> “아! 농인은 귀가 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습관대로 읽게 되는데 일반인들은 조용히 하라고 어깨를 툭툭 때리거나 얘기를 하거나...그리고 도서관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서 책을 읽다가 의문을 가지면서 수화를 하면서 읽는데 같은 농인 들끼리 앉아서 말을 하지 않고 수화로 대화를 하면서 책에 대한 내용을 대화하거나 토론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인들이 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인들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합니다.”

<청각장애인 #2> “농인만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우리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부딪치는 소리가 있어도 전혀 방해 받지 않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인 #3> “꼭 농인 분들만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대화를 하면서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장애인은 서가 활용시의 불편함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가에서 높은 곳에 위치한 도서는 확인이 어려우며, 특히 서가간의 간격이 좁을 경우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도서관 접근을 꺼리게 하는 이유로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지체장애인 #3> “칸칸이 있는데, 높이 있는 건 제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손이 닿는 닿을 수 있는 부분에서만 책을 골라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죠. 저걸 보고

싶는데 거기에서 직원분이 계속 거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꺼내달라고 하기가 뭐하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저희 손에 닿을 수 있는 부분만 봐요. 밑에만 보고 위에는 절대... 팔이 안 닿으면 눈으로만 저기에 뭐가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죠.”

지체장애인에게는 도서관 내의 화장실 과 식당 등 편의공간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애인화장실이 매우 중요한 시설로 손꼽혔는데,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이 이점에 있어서 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체장애인 #3> “어디 가면 화장실부터 먼저 보는 거죠. 우리가 어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넓은데도 있고 좁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봐가지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은 화장실을 제일 중요시 생각할거예요.”

<지체장애인 #4> “식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왜 힘드냐 면, 우리가 직접 물건을 날라야 된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문하면은 가져다주지만 그러한 공공식당 같은 경우는 식판을 날라오고 그래야 하는데, 도서관 식당을 가면, 특히 우리가 오전에 갔다가 식당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지체장애인의 입장에서 제기된 이동도서관의 불편함도 매우 의미 있는 문제제기였다. 이동도서관의 목적이 접근성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해 제공되는 아웃리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체장애인은 아래 의견과 같이 이동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다.

<지체장애인 #2> “일단 이동도서관의 특징이 어차피 장소가 좀 협소하잖아요. 이동도서관 안쪽이 좁으니까 어차피 이동차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타지를 못하는 거고, 장애인 보다 일반인 위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힘들겠죠.”

지체장애인에게는 도서관 공간의 가구도 매우 중요한 공간적 요소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동일한 규격의 천편일률적인 가구보다는 인체공학을 고려한 다양하며 편안한 가구의 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지체장애인 #4> “저보다는 목발로 다니는 친구들을 봤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밀리지 않는 튼튼한 의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자가 너무 가벼우면 앉다가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대개 보면 도서관 의자들이 고정되어있거나 잘 움직이는 거라서...집고 일어나도 안전할 수 있는...소파는 무게감도 있고 앉으면 편하잖아요. 그런 곳은 괜찮은데 보통 나무 의자만 있는데 같은 곳은 목발인 친구들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라. 활용 독서보조기기

시각장애인 피면담자들은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독서보조기기에 대해 주로 페이지플레이어, 확대독서기, 점자정보단말기 등을 언급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은 도서관에서 독서보조기기를 이용해 본 경험이 특별히 없다는 언급이 대부분이었다. 지체장애인은 높낮이 조절책상 이외에 필요한 독서보조기기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래 응답과 같이 공공도서관에서 유지보수 문제 및 사용방법에 대한 미숙지 등으로 독서보조기기 활용성이 매우 저조할 뿐더러 지체장애인은 장애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독서보조기기가 매우 다양해서 이것을 도서관이 구비하고 서비스하는데 대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시각장애인 #5> “독서보조기기는 실재를 놓고 보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죠. 공공도서관에서도 먼지 뒤집어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에서 구입은 하는데 그쪽 사서나 직원이 사용방법을 모르는 거죠. 실제로 또 장애인들이 많이 안 오니까.”

<지체장애인 #3> “장애별로 자기한테 필요한 게 아니면 쓸 일이 없죠. 저희가 필요한 건 책상이 휠체어를 쓸 수 있게 높낮이 조절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마. 도서관 이용공간에서의 직원 커뮤니케이션

도서관 이용공간에서의 인적 요소로서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질의하였다. 대체로 정보요구가 스스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또는 도서관 내부 이동 및 시설 활용시 불편함을 겪는 경우 도서관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요청시 그동안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는 오히려 적은 편이었고, 직원의 응대가 불만족하더라도 대개 요청을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응답자는 사서 등 도서관 직원의 장애인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도서관 사서는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교육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한 경우가 언급되었다.

<지체장애인 #4> “직원 분들은 반응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사람, 웃으며 도와주는 사람...대부분 보면 좋지 않은 표정으로 응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봤더니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사서보다는 단기적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분들이 장애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좋지 않은 표정으로 많이 바라봤던 거 같아요.”

<청각장애인 #4> “도서관 안에 직원들이든 누구든 농인을 위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어...직원들이 오히려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점...청각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 8〉 도서관 이용공간에서의 직원커뮤니케이션

장애유형	피실험자	도서관 직원 커뮤니케이션
시각	#1	원하는 자료의 스캔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2	원하는 도서를 요구하거나 시설 안내를 요구한 경험이 있음
	#3	직원에게 도움 요청을 하는 편이며, 대체로 친절함
	#4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을 하는 편이며, 대체로 친절함
	#5	경험 없음
청각	#1	직원에게 도움 요청을 하는 편이나 대체로 배려가 부족함
	#2	직원에게 도움 요청을 하는 편이며, 친절/불친절한 경우 모두 경험
	#3	직원에게 도움 요청을 하는 편이며 대체로 친절함
	#4	직원에게 도움 요청을 하는 편이나 대체로 친절함
	#5	직원에게 도움 요청을 하는 편이며, 친절/불친절한 경우 모두 경험
지체	#1	경험 없음
	#2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 요청하거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질의
	#3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 요청하거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질의
	#4	원하는 도서가 없을 경우 요청
	#5	경험 없음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기능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공공도서관의 양적 증가,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공간 및 시설의 편의제공 강화 등의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실제로 도서관 공간에서 느끼는 경험은 어떤지를 고찰하고, 실제로 장애인이 원하는 공간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유니버설 디자인의 관점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일한 공간에서 도서관서비스를 활용하는 통합서비스 환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은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 도출사항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도서관 공간에 대한 ① 장애인 이용자 경험, ② 장애유형별 주요 요구사항, ③ 통합서비스 공간에 대한 인식으로 분석·제시되었다.

첫째 도서관 공간에서의 장애인 이용자 경험은 장애유형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긍정 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간 및 시설의 편의성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겠지만, 공간에 위치한 인적요소 즉, 도서관 직원 및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장애인이 도서관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자주 활용하는 도서관

이용공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커뮤니티에서 집중해야 할 장애인 이용자의 장애유형을 조사하고 이에 맞추어 도서관 공간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서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요소를 장애인 친화적으로 준비함과 동시에 장애인서비스 공간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교육 및 비장애인 이용자에게 대한 장애인 인식 교육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관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유형별로 매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다. 시각장애인은 도서관 동선의 장애물 해소 및 점자유도블록, 신호장치 등의 구비를 요구하였고, 특히 최근 자동대출반납기기와 같은 도서관 내 편의시설들이 터치기반으로 조작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간의 의사소통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이용공간 마련을 요구하였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도서관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서가 활용시의 불편함을 지적하였으며, 도서관 내의 화장실 과 식당 등 편의공간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다. 신체적 불편함으로 이동도서관을 선호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동도서관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하였으며, 다양한 신체적 장애의 불편함을 지원할 수 있는 편안한 가구도 도서관의 공간적 요소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을 한 도서관에서 모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각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해당 지역커뮤니티의 핵심 장애인 이용자 유형을 정의하고, 해당 장애유형에 적합하도록 도서관 공간을 장애인 친화적으로 조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서비스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도서관 공간 조건하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서비스 공간이 조성되기 위해서 특히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통합공간으로 조성될 장소에 편의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한 지원될 것을 요구하였다. 즉, 이론적으로 통합서비스가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통합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의 선결조건을 공통적으로 제언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도서관은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의 각 5명으로 구성된 제한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심층면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 조건에서 이 연구 결과를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 집단의 이론 적용을 위한 일반화는 불가능하다. 추후 본 연구의 면담결과를 기초로 도서관의 공간적 요소가 장애인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장애유형별로 도서관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간적 요소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지혜, 차성중, 배경재. 2018.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장애유형별 이용자 핵심요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173-191.
- 생활SOC 3개년 계획안 발표. 2019.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4월 15일.
- 김환희, 박지홍. 2019. 서비스스케이프를 적용한 대학도서관의 공간구성이 이용자 만족도와 지속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관리학회지』, 36(1): 31-52.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556>> [인용 2019. 4. 5].
- 박성재. 2019. 스마트폰 무선신호를 이용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공간이용행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6(1): 295-313.
- 배경재, 강지혜, 차성중. 2018.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매뉴얼 구성요소 요구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245-262.
- 지선, 장윤금. 2017. 공공도서관 공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및 요구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461-480.
- 차성중, 배경재. 2019.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장애유형별 실증적 요구도 조사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1): 145-180.
- 한정원. 2019. 국내 공공도서관의 공간디자인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8(1): 170-177.
- Lincoln, Y. S. and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nouncement of the Three-Year Plan of Life SOC.” 2019.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Press Release*. April 15.
- Bae, K.-J., Kang, J.-H., Cha, S.-J., “A Demand Analysis of the Main Components in the Manual on Library Service for the Disable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245-262.
- Cha, S.-J., Bae, K.-J., “A Study on Empirical Needs of Users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Disabilitie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1): 145-180.

- Chi, S., Chang, Y. C., “A Study on the Young Adults Perceptions and Needs towards the Public Library Spa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4): 461–480.
- Han, J.-W.,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for the Space Design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 Focused on the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8(1): 170–177.
- Kang, J.-H., Cha, S.-J., Bae, K.-J. 2019. “A Study on Disabled Users Core Needs According to the Types of Disorders for Library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1):173–191.
- Kim, H.-H., Park, J.-H. “The Influence of Space Composition of University Libraries on User Satisfaction and Continuance Intention: Application of the Servicescap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1): 31–52.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Policy Briefing Home Page.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556>> [Cited 2019. 4. 5].
- Park, S.-P., “Analyzing Library Space Use Patterns in a Public Library Through Smartphone WiF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1): 295–313.